

무용전공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 건 미

서울예술종합학교 교수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	Abstract

I. 서론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문화부 산하 무용발전전략팀과 무용계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용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매년 2천 명에 이르는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직업무용단에 입단하는 무용수는 100명 미만이고, 150여개의 전국 문예회관 수에 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직업무용단 수는 20개도 안된다.’¹⁾라는 한 참석자의 발언처럼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취업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용 전공자나 졸업생들은 무용수 뿐 아니라 안무가, 무대조명, 무대조명디자인, 무용교사, 뮤지컬 안무가 등 무용 관련 및 인근 직종으로 진로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직종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사례 등도 간간히 전해지는 것을 볼 때²⁾,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다양한 직종에 대한 진로준비행동은

- 1) 이주영(2007. 2. 26). 안무가 양성·예술 중고교 무용교육 활성화 시급. 연합뉴스.
- 2) 김영미, 현선희(2007).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3), 503-519.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란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서,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는가를 의미한다³⁾. 진로선택은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지표이고, 이는 자신의 인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⁴⁾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둔 대학생에게 진로의 결정과 준비는 대단히 절실하고 구체적인 당면이다⁵⁾.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진로행동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에 따라, 타 학과에 비해 직업으로의 이행이 더 어려운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고찰이 필요하지만 무용전공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관찰한 연구는 박중길의 연구⁷⁾를 제외하고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Taveira, Silva, Rodriguez과 Maia⁸⁾는 진로 탐색에 있어서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은 존재하며, 진로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진로결정 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Brown, Eisenbeg와 Sawilowsky⁹⁾ 역

3)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4) 이정미(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부산교육학회지』 13(2), 101-123.

5) 김영미, 현선희(2007).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3), 503-519.

6) 김희진(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스포츠심리학회지』 17(3), 47-60.

7) 박중길(2006). 무용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3), 47-60.

8) Taveira, M. C., Silva, M. L. & Maia, J.(1998).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Counseling and Guidance*, 26, 89-104.

9) Brown, M. T., Eisenberg, A. L., & Sawilowsky, S. S.(1997). Traditionality and the discriminating effect of expectations of occupational success and occupational values for women within math-oriented fiel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418-431.

시 직업과 관련된 장애를 지각함에 따라 진로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여러 연구자들은 진로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⁰⁾. 그러므로 진로 결정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이 무엇이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과 그것이 진로 목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대학이라는 환경이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할지라도 어느 한 시기에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와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특정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치관이나 개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차후의 성격형성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¹⁾. 한편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 과정에 실제로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연구¹²⁾는 진로장벽 요인에 따라 개인의 결과 기대나 자기효능감 기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무용과 대학생은 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거의 전무하고 또 설상가상 재학 중 잦은 공연준비와 연습으로 자신의 명확한 진로준비나 계획을 세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로장벽을 제거하여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석준과 이기학¹³⁾, 조영아¹⁴⁾, 최

10) O' brien, K. M., & Fassinger, R. E.(1993). A Causa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11) Dolinger, S. J., Preston, L. A., O' Brien S. P., & DiLall(1996). individualiy and relatedness of the self: An autobiograph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 71, 1268-1278.

12)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nt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7(1), 36-49.

13) 최석준, 이기학(2007). 전공에 따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잠재집단, 지각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600-601.

14) 조영아(2007). 비서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서학회지』 16(1), 107-127.

미란¹⁵⁾, 손은령과 손진희¹⁶⁾ 손은령¹⁷⁾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및 자기효능감에 관하여 살펴보고, 조성연과 이선순¹⁸⁾, 김봉환과 김계현¹⁹⁾, 박고운과 이기학²⁰⁾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이형국²¹⁾, 이재창, 박미진과 김진희²²⁾, 이주희²³⁾의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발달, 진로상담,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무용전공과 진로에 관한 연구로, 김은주²⁴⁾가 연구한 무용전공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요인, 진로 성숙도, 진로준비행동에 관해 연구된 바 있었다. 그러나 아직 진로장벽을 많이 겪고 있는 예체능 계열 대학생 중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셋째, 무용전공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이다. 무용과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변인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무용전

-
- 15) 최미란(2006).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2), 289-300.
- 16) 손은령, 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17) 손은령(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 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4(2)』 415-427.
- 18) 조성연, 이선순(2006). 성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9(1), 127-140.
- 19)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1), 311-333.
- 20) 박고운, 이기학(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409-422.
- 21) 이형국(2007). 진로상담 기법을 활용한 진로교육 교과목 프로그램이 전문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지』 20(3), 103-119.
- 22)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지』 20(2), 111-127.
- 23) 이주희(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6(1), 103-115.
- 24) 김은주(2007). 무용전공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요인의 관계. 『대한무용학회지』 55(0), 49-68.

공 대학생들의 진로문제나 고민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준비를 선행시키는데 필요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무용과 학생으로 한정하였기에, 전체 무용 전공자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변인으로 학년별, 전공별 차이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인변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무용 전공 여대생을 조사대상의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008년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무용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교 4개교를 유의표집(propusive sampling)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0)

일반적인 특성		빈도	빈도(명)	퍼센트(%)
전공 계열	발레		96	31.0
	한국무용		105	33.9
	현대무용		109	35.1
가계 소득수준	200만 이하		59	19.0
	201-300만원		126	40.6
	301-400만원		97	31.3
	401만 이상		28	9.1
학 년	1학년		79	25.5
	2학년		83	26.8
	3학년		89	28.7
	4학년		59	19.0
대학 성적	상위권		96	31.0
	중위권		105	33.9
	하위권		109	35.1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총 32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완성토록 하였고, 표집된 표본 수 중 응답장의 응답내용일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표본 10명을 제외한 310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은영²⁵⁾의 진로탐색장애검사(KCBI: 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최미란²⁶⁾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형태는 Likert형 5점 스타일로 구성되어있고, Cornback's α 값은 .813~.920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Vocational Questionnaire II, Career Planning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사용한 김봉환²⁷⁾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형태는 Likert형 5점 스타일로 구성되어있고, Cornback's α 값은 .787~.91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표집대상인 4개 대학의 무용과 전공교수들에게 사전에 협조 확인을 받은 후에 본 연구자와 사전에 검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보조연구원들이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대상대상자에게는 조사의 목적과 내용과 응답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질문지는 본 연구자를 포함한 보조

25)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6) 최미란(2006).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2), 289-300.

27)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연구원이 직접 회수하였다.

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자료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10개 자료를 제외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Windows용 SPSS/PC+ 12.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별로 처리하였다. 첫째, 개인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및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년별, 전공별로 각 하위변인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는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III. 결 과

1. 개인변인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

독립변수를 학년별, 전공별로 설정하고 각 개인변인에 따른 진로장벽(대인관계, 신체열등, 경제문제, 흥미부족, 정보부족)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2>는 개인변인에 따른 진로장벽을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학년별 진로장벽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열등($F=5.783$), 흥미부족($F=4.926$), 정보부족($F=5.292$)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신체열등에서는 1학년 집단이($M=3.7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흥미부족에서도 4학년 집단이($M=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정보부족에서는 1학년 집단이($M=3.6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대인관계

〈표 2〉 개인변인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 분석결과

구 분	n	대인관계		신체열등		경제문제		흥미부족		정보부족		
		M	SD	M	SD	M	SD	M	SD	M	SD	
학 년	1학년(A)	79	3.54	.48	3.79	.73	3.39	.65	2.76	.58	3.69	.63
	2학년(B)	83	3.42	.51	3.58	.58	3.51	.58	2.61	.61	3.41	.73
	3학년(C)	89	3.41	.61	3.39	.64	3.58	.67	2.92	.49	3.22	.67
	4학년(D)	59	3.56	.54	3.71	.61	3.51	.61	3.52	.55	3.61	.61
F		1.663		5.783***		2.172		4.926***		5.292***		
post-hoc				A,D > C				D > C > A,B		A,D > C		
전 공 공	발레(A)	96	3.47	.65	3.51	.66	3.42	.65	2.57	.76	3.54	.66
	한국무용(B)	105	3.43	.71	2.97	.65	3.51	.59	2.76	.69	3.39	.48
	현대무용(C)	109	3.51	.67	2.87	.61	3.50	.58	2.67	.71	3.42	.61
F		.981		5.216***		1.045		1.875		1.486		
post-hoc				A > B,C								

*** $P < .001$

($F=1.663$), 경제문제($F=2.17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별 진로장벽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열등($F=5.216$)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신체열등에서는 발레 집단이($M=3.51$)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머지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대인관계($F=1.663$), 신체열등($F=.981$), 경제문제($F=1.045$), 흥미부족($F=1.875$), 정보부족($F=1.48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2. 개인변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독립변수를 학년별, 전공별로 설정하고 각 개인변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상황,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3〉은 개인변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3〉 개인변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분석결과

구 분		n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상황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M	SD	M	SD	M	SD
학년	1학년(A)	79	3.19	.62	3.32	.64	3.62	.72
	2학년(B)	83	3.28	.68	3.28	.68	3.52	.69
	3학년(C)	89	3.49	.59	3.68	.71	3.61	.71
	4학년(D)	59	3.72	.61	3.71	.68	3.60	.64
F			4.387***		3.937***		1.038	
post-hoc			D > B,A		D,C > A,B			
전공	발레(A)	96	3.53	.62	3.58	.58	.332	.62
	한국무용(B)	105	3.49	.58	3.46	.59	.341	.71
	현대무용(C)	109	3.58	.60	3.42	.61	3.27	.76
F			.989		1.287		1.243	
post-hoc								

*** $p < .001$

첫째, 학년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수집활동($F=4.387$),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상황($F=3.937$)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활동에서는 4학년 집단이($M=3.7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상황에서도 4학년 집단이($M=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활동($F=.989$),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상황($F=1.287$),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F=1.24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3. 무용전공계열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표 4〉는 여대생의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대인관계, 신체열등, 경제문제, 흥미부족, 정보부족 등의 변인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상황,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등의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표준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표 4〉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활동에는 정보부족($\beta=-.319$), 흥미부족($\beta=-.310$), 대인관계($\beta=.280$), 신체열등($\beta=-.192$), 경제문제($\beta=.183$)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변량의 27.7%($R^2=.277$)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학과 여대생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신체적인 열등감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을수록, 진로에 대한 흥미가 낮을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정보 수집을 하는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상황에는 정보부족($\beta=-.307$), 흥미부족($\beta=-.298$), 경제문제($\beta=-.154$)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변량의 12.3%($R^2=.123$)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학과 여대생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을수록, 진로에 대한 흥미가 낮을수

〈표 4〉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회귀분석

변인	정보수집활동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상황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정보수집활동	
	Beta	T	Beta	T	Beta	T
대인관계	.280	4.573***	.073	1.092	.093	.627
신체열등	-.192	3.772***	.046	.928	-.299	3.102***
경제문제	.183	-3.518***	-.154	2.227*	.078	1.228
흥미부족	-.302	-5.331***	-.298	-4.837***	-.001	-.082
정보부족	-.319	-5.937***	-.307	-5.019***	-.214	-2.679**
Multiple R	.527		.352		.327	
R Square	.277		.123		.106	
F값	26.484***		6.382***		5.938***	

* $P<.05$ ** $P<.01$ *** $P<.001$

록,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질 및 능력을 더욱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는 신체열등($\beta=-.299$), 정보부족($\beta=-.214$)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변량의 10.6%($R^2=.106$)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학과 여대생의 신체적인 열등감이 낮을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준비하는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는 무용전공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통합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무용전공 여대생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무용과 대학생의 개인변인과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개인변인과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무용과 여대생의 효율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시사점과 아울러 후속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장벽의 하위변인 중 신체열등에서 1학년과 4학년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위환경이 대학에 처음 입학하게 된 신입생들과 졸업 후 앞두고 사회로 진출하기 직전의 4학년들에게 신체에 대한 열등감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용수들과 신체상에 관한 관계가 대학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황규자, 배진경²⁸⁾의 연구에서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28) 황규자, 배진경(2005). 무용 전공 여대생의 신체상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2), 245-256.

다른 신체상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옥은²⁹⁾과 유지현³⁰⁾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잘 설계되고 보다 다양한 배경변인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용전공 여대생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흥미와 정보에 대한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무용전공 여대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흥미와 앞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지하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미란³¹⁾의 체육전공계열 집단이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적장벽(경제, 정보 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박인희³²⁾, 정지원³³⁾, 김영미³⁴⁾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에 관한 정보와 전공에 대한 흥미부여, 또한 진로를 선택, 결정하고 준비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저학년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진로장벽의 하위변인 중 신체열등에서 발레전공자들에 가장 높게 신체적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발레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신체의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학생들에게 신체장애, 다이어트, 성형 등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열등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 시급하

29) 이옥은(1999). 창작무용 학습경험이 여성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0(2), 45-57.

30) 유지현(2001). 무용수의 신체상과 무대자신감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31) 최미란(2006).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2), 289-300.

32) 박인희(2000). 용서 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용서수준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33) 정지원(2005). 용서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용서 정도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34) 김영미(2001). 무용성취 수준이 미래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4(1), 239-225.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중 정보수집활동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상황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고학년에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할 수 있고, 고학년일수록 진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자질 및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중길³⁵⁾의 정보수집활동과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 학년차가 낮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손은령, 손진희³⁶⁾의 연구에서 학년별로 진로준비행동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4학년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김봉환³⁷⁾, 이제경³⁸⁾의 연구와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무용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가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고학년이 되어야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자기 탐색 및 진로결정, 진로준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용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서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한 진로준비 및 취업센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는 높아질수록, 경제문제, 신체열등, 흥미부족, 정보부족 등의 진로장벽은 낮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 여대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노력과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부분에 있어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해소되면,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5) 박중길(2006). 무용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3), 47-60.

36) 손은령, 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37)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38) 이제경(2004). 한국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심리적 특성 및 개인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이러한 결과는 최미란³⁹⁾의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장벽을 극복하게 되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체육전공계열과 사회체육전공계열 집단은 목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진다는 박중길⁴⁰⁾, 이기학과 이학주⁴¹⁾, Betz⁴²⁾, Taylor & Betz⁴³⁾등의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무용과 관련된 분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무용학과 학생들의 현재 처한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년이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해주는 영향력 있는 요인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학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는 무용전공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련의 연구방법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진로장벽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우선 학년별 진로장벽의 차이는 저학년과 고학년이 신체적으로 열등감을 더 느끼며, 고학년일수록 흥미와 정보의 부족함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공별 진로장벽의 차이는 신체열등에서 발레집단이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집단보다 신체에 대

39) 최미란(2006).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2), 289-300.

40) 박중길(2006). 무용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3), 47-60.

41)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42) Betz, N. E. & Hackett, G.(1986).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43) Taylor, K. M., & Betz, N.(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한 열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우선 학년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고학년일수록 정보에 대한 수집활동을 더 하는 것으로, 또한 고학년일수록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공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대인관계 활동이 증가할수록, 신체열등감이 감소할수록, 경제문제가 증가할수록, 진로에 대한 흥미와 정보에 대한 부족이 감소할수록 정보수집활동은 높아졌고, 경제문제가 낮아질수록, 진로와 흥미에 대한 부족이 감소할수록 진로 준비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것에 관한 인지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신체열등이 감소할수록, 정보부족이 감소할수록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높아졌다.

■참고문헌

- 김수리(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영희(2006).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성취수준이 무용학업적응과 진로결정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정숙, 포내숙(2006). 무용전공 여대생의 수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5(6), 291-229.
- 박중길, 이선애(2003). 무용전공여대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2(1), 487-497.
- 손은령(2002).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리교육학회지』 15(2), 73-86.
- 송원익, 강경모(2006). 무용전공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전공만족과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2), 461-469.
- 원호택, 김계현, 이명선, 이훈진(1992). 대학생의 공부스트레스 대응훈련 프로그램.

- 『학생연구』 27(1), 1-2.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제경(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발달의 대학 전공분야별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장기명(1998).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학생지도연구』 19, 101-132.
- Betz, N. E.(1994). *Basic issues and concepts in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 NJ: Erlbaum.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Cruess, D. G., Antoni, M. H., McGregor, B. A., Kilbourn, K. M., Boyers, A. E., Alferi, S. M., Carver, C. S., & Kumar, M.(2000). Cognitive-behavioral stress management reduces serum cortisol by enhancing benefit finding among woman being treated for eaelly stagn breast cancer. *Psychosomatic*, 62, 304-308.
- Luzzo, D. A., & Jenkins, S. A.(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 1-8.
- Rojias, V, M, & Kleiner, B. H.(2001). The art and science of effective stress management, *Mangement Research News*, 24, 86-96.

논문투고일	2008년	6월	28일
심사일		7월	3일
심사완료일		7월	20일

Abstract**The Relationships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Woman Major in Dance**

KunMi Lee
Seoul Aart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woman major in d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0 participants who were college woman major in dance in Seoul. To analysis the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SPSS 12.0 version was used for descriptive, reliability analysis, one-way ANOVA and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rom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in career barriers differences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there were significant by grade. Second,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ifferences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there were significant by grade. Third, career barriers influe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words: College Woman(여대생), Major in Dance(무용전공), Personal Variables(개인변인), Career Barriers(진로장벽), Career Preparation Behavior(진로준비행동)